

아시아 거주 한인 CCKs(Cross-Culture Kids)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수경(李修京)*

오인수(吳仁秀)**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CCKs의 문화적응 유형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화적응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문화적응의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응 유형은 분리-주변화 유형, 분리 우세형, 통합-동화 유형, 주변화-동화 유형의 4가지로 확인되었다. 문화적응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언어 구사능력,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로는 분리-주변화 유형, 주변화-동화 유형이 통합-동화 유형 및 분리 우세형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CCKs의 문화적응 유형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교차문화 아이들(CCKs: Cross-Culture Kids),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스트레스

* 교신저자, 한세대학교원 상담학과 연구전담 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I. 서론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기술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이 되기 전에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유아·아동·청소년들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학자 및 심리학자들은 국가 간의 이주가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Melton, 2005; Pollock & Van Reken, 1999). 우리 나라의 경우 주재원, 선교사 자녀 등과 같이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가족단위로 이동하는 아이들이 이에 해당하며, 학생 본인의 유학으로 홀로 이주하는 아이들 혹은 가족 일부와 떨어져 살게 되는 기러기 가족의 아이들 또한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성인이 되기 이전에 해외의 다른 국가로 이주하게 되는 유아, 아동, 청소년을 총칭하여 교차문화 아이들(Cross-Culture Kids: 이하 CCKs)이라고 부르며, 이 개념은 부모의 직업으로 인해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아이들을 의미하는 '제 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 이하 TCKs)의 정의를 보다 확장시킨 개념이다. TCKs 개념을 처음 만든 Useem 부부는(Useem & Downie, 1976),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모국문화를 제 1문화, 가족들이 현재 살고 있는 체류국 문화를 제 2문화로 명명하였으며 재외국민 공동체가 공유하는 생활스타일을 '틈새 문화(interstitial culture)' 혹은 '문화 사이의 문화'라는 의미로 '제 3문화'로 명명하였다(Pollock & Van Reken, 1999). TCKs의 확장된 개념인 CCKs는 이러한 문화 접촉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CCKs는 출생에서 18세까지의 발달시기 동안 둘 혹은 그 이상의 문화적 환경에서 살았거나 혹은 의미 있게 둘 이상의 문화에서 상호작용하였던 사람"으로 정의된다(Pollock, Van Reken & Ruth, 2009; Van Reken & Bethel, 2005).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타국가로 이주하여 다른 국가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아이들을 한인 CCKs로 규정하고 연구하였다.

해외 거주 CCKs는 문화접촉의 경험으로 인해 국내 학생들과는 다른 여러 특징을 갖게 된다(김동화, 1999). 이러한 아이들은 두 개 이상의 문화권에서 성장하므로, 융통성이 많고 적응력이 강하며, 성숙한 가치관과 글로벌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김동화, 1996; LaFromboise et al, 1993; McCaig, 1994; Pollock & Van Reken, 1999; Useem & Cottrell, 1996). 그러나 성장기의 중요한 시기를 외국에서 보내게 되므로,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및 우울,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혼란 등 심리적·사회적 발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최근에 한인 아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해외로 이주하게 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외 거주 한인 CCKs 연구로는 주로 유학생들의 학교적응, 기러기 가족 등의 가족문제, 귀국 후 재적응, 선교사 자녀의 정체성이나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석원, 2008; 김향미, 2013; 김선미, 2009; 김유선, 2003; 김희정, 최연실, 2012; 박정호, 2003; 박희정, 2004; 전이나, 2008; 조은숙, 2011; 최양

숙, 2008).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는 오히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남순현, 2010; 두흔, 박재왕, 2013; 리난, 2009) 혹은 이주 노동자나 국제 결혼 가정의 여성(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임은미, 정성진, 이수진, 2010) 혹은 다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남효진, 2007) 많이 이루어져 왔다. 즉,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보다는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해외 거주 한인 CCKs의 문화적응에 주목하여 이들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하는 선교사, 주재원 가족들이 많으며, 유학생 역시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 호주 등의 국가보다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로의 유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들의 문화적응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불안 및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이수연, 2009; 채송희, 2009), 해외 이주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Berry & Kim, 1988; Hovey & King, 1997).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문화적응 유형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통합이나 동화 유형을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화나 분리 유형을 보이는 사람들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고 문화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재원, 2012; 오경자 외, 2010; 이수경, 2014; Berry, 1980, 1990, 1997; Berry & Sam, 1997; Berry et al, 2006).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북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문화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문화적응을 돕고자 이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파악하고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 거주 한인 CCKs의 문화적응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아시아 거주 한인 CCKs의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아시아 거주 한인 CCKs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문화적응은 초기에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문화접촉 간에 발생하는 집단수준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였는데(정진경, 양계민, 2004), Redfield, Linton과 Herskovits(1936)는 '문화적응' 개념을 '다른 문화적 근원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적·지속적으로 접촉할 때,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문화적응 이론은 '단일 차원적 모델(One-dimensional acculturation theory)'에서 시작되었는데, Gordon(1964)은 새로 이주하게 된 사회의 주류 문화에 동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단일 차원의 문화적응 모델을 최초로 제시하였다(강재원, 2012). 그러나 1980년대~90년대에 들어서 단일 차원적 문화적응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민족문화 정체성 등의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선적 동화(Straight-line of assimilation)'이론, '직각적 정체성 모델(Orthogonal identity model)', 모국 문화 정체성과 주류 문화 정체성 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양극단(Bi-polar)'이론 등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모델들은 모국문화와 체류 문화가 동시에 공존하는 문화적응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인 1980년대 Phinney를 중심으로 이주 사회 소수민족 출신 구성원들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민족 고유의 문화와 관습, 언어, 가치관의 특성에 의해 구분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 이주자를 대상으로 '이중문화 정체성 모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강재원, 2012).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Berry(1997)와 동료들(Berry, Kim, & Boski, 1989; Sam & Berry, 1995)은 새로 이주한 사람들의 '모국문화 정체성 유지'와 '새로운 문화의 수용과 참여'에 따라 문화적응 유형을 아래의 <표 1>과 같이 통합·동화·분리·주변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한(Berry, 1970; 1974; 1980) '다차원적 문화적응 이론'을 제시하였다. 현재 많은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이론들은 Berry가 제시한 다차원적 문화적응 이론 모델을 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위 유형을 살펴보면, 통합(integration) 유형은 모국의 문화 정체성도 유지하며, 체류국가의 새로운 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반면 동화(assimilation) 유형은 모국 문화의 정체성 유지 정도는 낮고, 체류 국가의 문화수용 정도가 높은 유형이며, 분리(separation) 유형은 모국 문화의 정체성 유지 정도는 높지만 체류 국가의 새로운 문화수용 정도는 낮은 유형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변화(marginalization) 유형은 모국 문화의 정체성 유지도 낮고, 체류 국가의 문화 수용 정도도 낮은 유형을 의미한다.

<표 1> 문화적응 유형의 구분

		체류국가의 문화 수용 및 참여	
		높다 <-----> 낮다	
모국 문화 정체성 유지	↑ 높다 ↓ 낮다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동화(Assimil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문화적응 유형의 개념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실제 문화적응 과정에서 한 개인이 어떠한 문화적응 유형을 나타내는지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정진경과 양계민(2004)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문화적응을 할 때, 네 유형 중에 반드시 한 유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발달단계, 거주하는 국가 등 여러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른 적응 형태를 나타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Berry 등(2006)이 13개의 다른 국가로 이주한 청소년들을 연구하였을 때에도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유형은 이론적 개념과 동일한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동화, 분리, 통합 유형은 이론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주변화 유형은 실제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화, 주변화, 분리의 점수가 모두 비슷하게 높은 모순된 양상을 보이는 유형이 나타났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모국의 언어는 유능하지만 모국에 대한 정체성은 낮았으며, 현지 국가 언어구사능력 및 체류국의 정체성은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Berry 등(2006)은 이 유형을 Marcia(1994)의 '정체성 혼란' 개념에 기초하여 혼미형(diffuse profile)이라 명명하였으며, 이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체류국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나 접촉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고 청소년기의 사회적인 불확실한 입지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이렇게 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이유로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특성 및 여러 가지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성별, 언어, 출국시기, 사회적지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성별과 문화적응의 경우, 선행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남자 아이들보다는 여자 아이들이 체류국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권미경, 이순형, 2010), 여학생들이 분리나 주변화 유형을 보일 확률이 더 높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언어는 문화적 정체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데, 언어를 학습할 때는 문자적인 언어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닌, 해당 국가의 문화도 함께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체류 국가의 언어 구사정도는 곧 해당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문화권의 언어 구사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문화권에 참여하는 정도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는 출국시기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릴 때 해외로 이주하여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모국어와 체류 국가의 언어 구사능력 및 문화적응 유형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강재원, 2012; 문영하, 2012), 모국어가 우세한 청소년들은 주로 분리 유형을 보인 반면 체류 국가의 언어가 우세한 학생들은 체류국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화 유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언어구사능력이 문화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의 유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데, 반승현(2008)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동화 유형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구와 가족 및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충분히 제공될 때 청소년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타문화권에의 관심 및 수용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적응의 유형은 문화적응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Berry(1970)가 제안한 개념으로, 문화 간 접촉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생활사건(life events)에 대한 반응으로서(Sam & Berry, 2006),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원에 의한 결과를 뜻하는 것이다(Hovey & Magana, 2002).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심리적 건강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Berry, Kim, Minde, & Mok, 1987; Finch et al., 2000; Kopic, 2004), 모든 이주자들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Bhugra, 2003), 성격, 언어, 대처자원, 사회적지지, 체류 국가, 문화적 거리와 같은 개인적·사회적 변인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Berry, 2006). 권미경과 이순형(2010)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은 조기유학 중인 초·중·고 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채송희(2009)의 연구에서 교사지지와 가족지지는 이문화 수용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체류 국가도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데, 선행 연구에서 중국과 동남아에서 공부하는 조기 유학생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미경 & 이순형, 2010; 이수경, 2014)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은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일상생활이 주로 한인 공동체의 생활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아, 북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문화적 폐쇄성의 수준이 높고, 이는 장기적으로 다문화적 정체성을 성장시키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문화적응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통합 유형은 긍정적인 문화적응과 가장 높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주변화 유형은 가장 낮은 정적 관계 그리고 동화와 분리 유형은 중간 정도의 정적 관계를 보인다(강재원, 2012;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Berry, 1980, 1990, 1997; Berry & Sam, 1997; Berry et al, 2006). Zheng, Sang, Wang(2004)은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문화적응 유형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통합 유형을 보이는 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동화, 분리, 주변화 유형을 보이는 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2010)의 연구에서 주변화 유형은 문화적응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였으며, 통합과 동화 유형은 적응 수준이 주변화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간의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통합은 많은 보호요인·가령

유연한 성격, 모국과 체류국의 사회지지 체계-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주변화는 거주국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모국에서도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견해로는 통합은 두 가지의 문화의 이점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으며(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모국과 체류국 문화의 정체성 및 수용의 차원에서 모두 긍정적이지만, 주변화는 두 차원 모두 부정적이고 동화나 분리는 한 차원은 긍정적이거나 다른 차원은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문화적응 유형과 적응 간의 연구가 대부분 문화적 다양성이 수용되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합이 문화적응과 높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Berry et al, 2006).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Berry 등(2006)의 논문을 참조하여 아시아 거주 한인 CCKs의 문화적응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언어(한국어 및 거주지 언어능력) 출국시기, 사회적 지지 변인을 선정하여 문화적응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한국에서 출생한 이후 부모님의 직업(예: 선교사, 외교관, 주재원, 해외 취업 등), 학업(예: 아버지 유학), 이민 등 부모님의 선택 혹은 학생 본인의 유학으로 현재 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다른 국가에 1)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한인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학교, 필리핀 마닐라 국제학교, 홍콩 국제학교, 주재원 혹은 선교사로 일본, 중국 등에 체류 중인 CCKs를 대상으로 우편과 이메일의 방법으로 약 260부의 설문자료를 편의표집으로 수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총 228명의 설문자료가 연구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자기보고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경제소득의 경우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1) CCKs의 개념 정의에서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6개월 미만은 단기여행의 사례도 많기 때문에 문화적응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을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의 한 학기가 보통 6개월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96(42.1)	현재 거주 국가	중국	32(14)	
	여	132(57.9)		홍콩	25(11)	
나이	11세-13세	20(8.8)		일본	12(5.3)	
	14세-16세	122(53.5)		인도네시아	81(35.5)	
	17세-19세	86(37.7)		필리핀	78(34.2)	
경제 소득	상	59(25.9)	출국 시기	1세 이상-6세 미만	80(35.1)	
	중	120(52.63)		6세 이상-12세 미만	73(32.0)	
	하	49(21.49)		12세 이상	75(32.9)	
해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가족 모두 함께 거주	166(72.8)		거주 기간	6개월 이상-1년 미만	7(3.1)
	가족/친지 일부와 거주	25(11)			1년 이상-5년 미만	80(35.1)
	혼자 거주	33(14.5)	5년 이상-10년 미만		59(25.9)	
	기타	4(1.8)	10년 이상-15년 미만		47(20.6)	
			15년 이상		35(15.4)	
변인	구분	N(%)				
		선교사	55(24.1)			
		주재원	61(26.8)			
		사업	24(10.5)			
		기타(공부 등)	5(2.2)			
	본인유학 및 기타		본인유학	19(8.3)		
해외거주 이유			기타	4(1.8)		
			무응답	60(26.3)		

2. 측정도구

1)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arry(2001)가 개발하고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2009)가 변안한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을 사용하였다. EAAM의 경우 미국 사회 내에서의 아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척도이다. 원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점)'에 이르는 Likert식 7점 평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노하나(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하위 영역은 '통합' 5문항(예: 나는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와 함께 있어도 매우 편안하다), '동화' 8문항(예: 나는 집에 있을 때 대개 외국어를 사용한다), '분리' 6문항 (예: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한국 사람이다), '주변화' 9문항 (예: 나는 때때로 외국 사람이거나 한국 사람이거나 모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낀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2009)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의 신뢰도는 .741, 통합은 .685, 동화는 .857, 분리는 .705, 주변화는 .873으로 나타났다.

2)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로는 Sandhu와 Asrabadi(1994)가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문화 이입과정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IS)를 이승중(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평정 척도이며 점수는 최하 36점에서 최고 18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요인의 하위영역은 7가지로 '지각된 차별감' 9문항(예: 나는 이 사회에서 다르게 취급된다), '향수병' 4문항(예: 집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지각된 적대감' 5문항(예: 다른 사람들은 나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비웃는다), '두려움' 3문항(예: 내가 가진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문화적 충격' 3문항(예: 새로운 음식들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죄책감' 2문항(예: 나는 여기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기타(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의사소통 문제 등)' 10문항으로(예: 나는 여기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구성되어 있다.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2009)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3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53으로 나타났다. 하위 척도별 신뢰는 지각된 차별감은 .865, 향수병은 .813, 지각된 적대감은 .818, 두려움은 .756, 문화적 충격은 .635, 죄책감은 .507, 기타는 .850이었으며, '죄책감' 척도는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3)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척도는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평가 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김명숙(1995)이 번안하고 오인수(2011)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거주지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가족지지' 5문항(예: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친구지지' 5문항(예: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 '교사지지' 5문항 (예: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6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부정형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채점하여 처리하였으므로,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승연, 오인수, 이주연(2014)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친구지지는 .94, 가족지지는 .94, 교사지지는 .80이었다. 아시아 거주 CCKs의 사회적지지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04였으며, 친구지지는 .929, 가족지지는 .947, 교사지지는 .777이었다.

4) 한국어 및 거주지 언어능력

‘언어구사능력’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기타 언어’를 포함하여 10개의 언어를 제시하고, ‘고급’은 1번, ‘상급’은 2번, ‘중급’은 3번, ‘초급’은 4번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시에는 학생이 사는 거주 국가의 공용어 구사 능력을 ‘외국어 능력’으로 가정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의 군집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ANOVA 분석으로 문화적응 유형 및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관련을 분석하였다. 문화적응 유형 척도는 표준화 점수인 T점수로 바꾼 후에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방법으로는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Ward와 K-means의 2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는 ANOVA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IV. 연구 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부록>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한국어능력(M=3.35)이 거주지 언어능력(2.36)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국시기의 경우 언어능력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 중에서 향수병, 두려움 및 문화적 충격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언어능력의 경우 한국어능력이 기타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는 또래지지의 상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유형 역시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2. 아시아 거주 한인 CCKs의 문화적응 유형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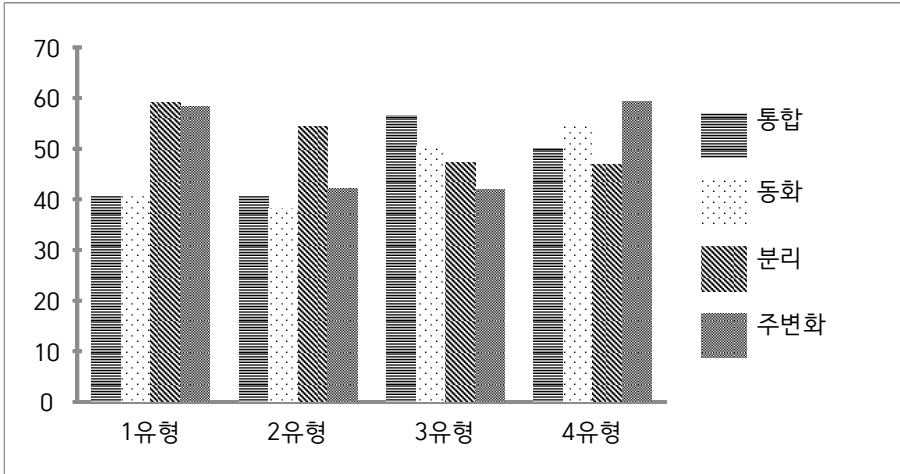
‘문화적응 유형’ 척도의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4가지 변인을 군집분석 하였으며, 1단계에서 나온 결과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군집의 수를 4개로 구분한 후, 2단계에서 4개의 군집수를 기준으로 군집유형을 최종 확인하였다. 군집분석 절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집단이 분류되었는데(<표 3>, <표 4>), 군집 1은 59명(25.88%), 군집 2는 56명(24.56%), 군집 3은 58명(25.44%), 군집 4는 55명(24.12%)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류된 군집별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4가지 문화적응 하위유형의 군집중심 및 최종군집 평균과 표준편차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1단계)	문화적응 유형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1군집	21.13	35.49	63.00	90.08	
2군집	21.13	34.00	37.67	36.72	
3군집	68.37	41.45	65.11	43.19	
4군집	47.11	60.82	35.56	69.06	
K-평균 군집분석 결과(2단계)	문화적응 유형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1군집	M	40.59	41.07	59.04	58.40
	SD	7.53	4.85	5.71	7.76
2군집	M	40.49	38.10	54.33	42.11
	SD	7.49	4.68	9.12	4.83
3군집	M	56.60	50.44	47.21	41.97
	SD	5.28	5.83	9.34	4.19
4군집	M	50.07	54.93	46.92	59.29
	SD	6.85	6.20	6.80	7.04

<표 4> 군집분석 결과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군집	1 (분리-주변화 유형)	2 (분리 우세형)	3 (통합-동화 유형)	4 (주변화-동화 유형)
명(%)	59(25.88%)	56(24.56%)	58(25.44%)	55(24.12%)



[그림 1] 군집별 설명변인의 평균

각 군집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군집별로 평균을 파악하여 군집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우선 군집 1은 네 척도 점수 중 분리 척도의 점수가 59.04로 가장 높고, 주변화 점수가 58.40으로 분리 요인의 점수와 1점 미만의 미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분리-주변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군집 2는 분리 척도의 점수가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므로, 분리-우세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동화 점수가 38.10으로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군집 3은 통합 점수가 56.6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동화 점수는 50.44로 통합 요인의 점수와 6.16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통합-동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의 경우에는 주변화가 59.2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동화 척도의 점수가 54.93으로 통합과 5점 미만의 적은 차이를 나타내므로, 주변화-동화 유형이라 명명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예: 거주국가, 경제소득, 거주기간 및 부모의 직업)에 따른 문화적응유형의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투입변인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3. 아시아 거주 CCKs의 문화적응에 영향 미치는 요인

군집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아시아 거주 CCKs의 4가지 문화적응 유형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 결과 Deviance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분석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은 성별, 출국시기, 한국어 능력 및 거주지 언어능력, 사회적 지지의 하위척도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총 7개의 변인이었으며, 이러한 변인들을 적용한 모델이 네 집단을 예측할 확률은 51.3%였으며, 분리-주변

화 유형, 분리 우세형, 통합-동화 유형, 주변화-동화 유형의 각 집단을 정확하게 예측할 확률은 45.8%, 62.5%, 53.4%, 4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Wald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통합-동화 유형 집단에 비해 분리 우세형 집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별, 한국어 능력, 거주지 언어능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귀계수를 근거로 해석해 볼 때, 통합-동화 유형과 분리 우세형에서 여학생들이 분리 우세형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분리 우세형을 보이고, 거주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수록 통합-동화 유형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통합-동화 유형과 분리-주변화 유형 사이에서는 여학생이 분리-주변화 유형을 보이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한국어 능력이 유창하고 친구지지가 적을수록 분리-주변화 유형이 되는 경향을 유의미하게 보였다. 세 번째, 통합-동화 유형과 주변화-동화 유형 사이에서는 여학생일수록, 거주지 언어능력이 좋고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적을 경우에 유의미하게 통합-동화 유형에 비해 주변화-동화 유형 양상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분리 우세형과 분리-주변화 유형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거주지 언어능력이 좋고 친구지지가 적을수록 분리 우세형보다 분리-주변화 유형 양상을 나타낸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분리 우세형과 주변화-동화 유형 사이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고 거주지 언어능력이 더 좋으며 친구지지가 더 적을 때 분리 우세형보다 주변화-동화 유형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리-주변화 유형과 주변화-동화 유형 사이에서는 거주지 언어능력이 더 좋을수록 분리-주변화 보다는 주변화-동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문화적응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준 유형	비교 유형	변수	B	S.E	Wald	df	P	Exp(B)
통합-동화 유형	분리 우세형	성별 (남학생)	-1.073	.438	6.006*	1	.014	.342
		출국시기	.036	.256	.019	1	.889	1.036
		한국어 능력	1.109	.318	12.172***	1	.000	3.031
		거주지 언어능력	-.696	.261	7.086**	1	.008	.499
		친구지지	.027	.071	.139	1	.709	1.027
		가족지지	-.032	.045	.516	1	.473	.968
		교사지지	-.085	.058	2.171	1	.141	.918

기준 유형	비교 유형	변수	B	S.E	Wald	df	P	Exp(B)
통합-동화 유형	분리-주변화 유형	성별 (남학생)	-1.420	.442	10.342**	1	.001	.242
		출국시기	.346	.263	1.722	1	.189	1.413
		한국어 능력	.646	.302	4.570*	1	.033	1.909
		거주지 언어능력	.253	.253	1.002	1	.317	1.288
		친구지지	-.337	.068	24.234***	1	.000	.714
		가족지지	-.041	.049	.714	1	.398	.960
		교사지지	.001	.060	.000	1	.989	1.001
	주변화-동화 유형	성별 (남학생)	-.913	.442	4.258*	1	.039	.401
		출국시기	.311	.272	1.302	1	.254	1.364
		한국어 능력	.275	.299	.843	1	.359	1.316
		거주지 언어능력	.827	.263	9.933**	1	.002	2.288
		친구지지	-.303	.068	19.869***	1	.000	.739
		가족지지	-.101	.047	4.534*	1	.033	.904
		교사지지	-.044	.062	.503	1	.478	.957
분리우세형	분리-주변화 유형	성별 (남학생)	-.348	.460	.572	1	.450	.706
		출국시기	.310	.268	1.340	1	.247	1.363
		한국어 능력	-.462	.322	2.066	1	.151	.630
		거주지 언어능력	.949	.276	11.786**	1	.001	2.582
		친구지지	-.364	.070	26.751***	1	.000	.695
		가족지지	-.009	.048	.035	1	.851	.991
		교사지지	.086	.062	1.946	1	.163	1.090
	주변화-동화 유형	성별 (남학생)	.160	.470	.116	1	.734	1.173
		출국시기	.275	.283	.943	1	.332	1.316
		한국어 능력	-.834	.330	6.396*	1	.011	.434
		거주지 언어능력	1.523	.294	26.762***	1	.000	4.587
		친구지지	-.329	.071	21.667***	1	.000	.719
		가족지지	-.068	.048	2.022	1	.155	.934
		교사지지	.041	.065	.399	1	.528	1.042

기준 유형	비교 유형	변수	B	S.E	Wald	df	P	Exp(B)
분리-주변화 유형	주변화-동화 유형	성별 (남학생)	.508	.411	1.525	1	.217	1.661
		출국시기	-.035	.254	.019	1	.890	.965
		한국어 능력	-.372	.272	1.859	1	.173	.690
		거주지 언어능력	.575	.240	5.716*	1	.017	1.776
		친구지지	.034	.049	.490	1	.484	1.035
		가족지지	-.059	.043	1.901	1	.168	.942
		교사지지	-.045	.058	.607	1	.436	.956

4. 아시아 거주 CCKs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아시아 거주 CCKs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총합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 시 분리 우세형과 통합-동화 유형에 비해 분리-주변화 유형과 주변화-동화 유형이 유의미하게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요인(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문화적 충격, 두려움, 기타(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의사소통 문제 등))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분리 우세형과 통합-동화 유형이 분리-주변화 유형과 주변화-동화 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적대감에서는 주변화-동화 유형이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분리-주변화 유형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 우세형, 통합-동화 유형이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분리-주변화 유형과 주변화-동화 유형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분리 우세 및 통합-동화 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

유형	문화적응 유형	N	M	SD	F	사후검정
문화적응 스트레스 총합	분리-주변화 유형	59	75.19	21.03	23.703***	분리우세, 통합-동화 유형<분리-주변화, 주변화-동화
	분리 우세형	56	55.97	16.73		
	통합-동화 유형	58	54.96	17.34		
	주변화-동화 유형	55	79.79	23.69		
지각된 적대감	분리-주변화 유형	59	8.19	2.91	24.451***	분리 우세, 통합-동화 유형<분리-주변화 <주변화-동화
	분리 우세형	56	6.04	1.82		
	통합-동화 유형	58	6.55	2.13		
	주변화-동화 유형	55	10.11	3.83		
지각된 차별감	분리-주변화 유형	59	16.75	5.23	21.873***	분리우세, 통합-동화 유형<분리-주변화, 주변화-동화
	분리 우세형	56	12.30	4.40		
	통합-동화 유형	58	12.15	4.40		
	주변화-동화 유형	55	18.63	6.58		
향수병	분리-주변화 유형	59	10.20	4.27	5.103**	분리우세, 통합-동화 유형<분리-주변화, 주변화-동화
	분리 우세형	56	8.07	3.82		
	통합-동화 유형	58	7.83	3.70		
	주변화-동화 유형	55	9.61	3.74		
두려움	분리-주변화 유형	59	8.41	3.15	18.099***	분리우세, 통합-동화 유형<분리-주변화, 주변화-동화
	분리 우세형	56	6.05	2.31		
	통합-동화 유형	58	5.64	1.78		
	주변화-동화 유형	55	8.69	3.60		
문화적 충격	분리-주변화 유형	59	6.86	2.49	13.419***	분리우세, 통합-동화 유형<분리-주변화, 주변화-동화
	분리 우세형	56	4.88	1.97		
	통합-동화 유형	58	4.90	2.05		
	주변화-동화 유형	55	6.71	2.50		
기타 (사회적고립, 열등감,불신, 의사소통 문제 등)	분리-주변화 유형	59	21.28	6.56	19.848***	분리우세, 통합-동화 유형<분리-주변화, 주변화-동화
	분리 우세형	56	16.01	5.46		
	통합-동화 유형	58	15.33	5.51		
	주변화-동화 유형	55	22.48	6.89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CCKs를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적응이 어떻게 유형화 되는지 살펴보고,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논의점 및 교육에의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CCKs의 문화적응 유형은 분리-주변화 유형, 분리 우세형, 통합-동화 유형, 주변화-동화 유형의 4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Berry가 제시한 문화적응 유형의 이론과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주변화-동화 유형의 경우에는 함께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주변화와 동화의 두 유형의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일부 나타난 현상으로(Berry et al, 2006; 이수경, 2014), 이는 사춘기가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므로, 많은 학생들이 모국과 체류국의 어떤 집단에 속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TCKs에 관한 연구에서 이들은 모국이나 체류국 어느 한 곳에 완전히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소속감 결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Pollock & Van Reken, 1999), 주변화-동화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 역시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 소속감의 결여를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추후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주변화 혹은 동화 유형을 보이게 되는지 보다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CCKs 상담 시 주변화-동화 유형처럼 서로 상반된 특징을 동시에 보이는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CCKs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화 혹은 동화 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두 가지 유형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두 가지 특성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 주변인으로서 어려움을 겪는지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네 유형 중에서 통합-동화 유형은 존재하였으나, 동화 유형이 우세하게 높은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아시아 국가의 한인 공동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의 연구에서 중국, 일본과 같은 비영어권 국가에 주재한 경우, 한인 공동체는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며, 영어권 국가에 비해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한국 사회가 유사하게 재현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다수의 학생들은 한인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한인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현지 친구 및 다양한 문화를 지닌 친구들을 접하기보다는 다수의 한국 아이들과 교우관계를 맺고, 한국 사회와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해 왔을 수 있다. 이렇게 타문화권의 국가에서도 다른 문화를 접하기보다 한국 사회 안에서 주로 생활하려고 하는 점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할 수 있다. 미국·캐나다와 같은 북미 문화권의 백인 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이정우, 2007),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선진국이 아니라는 인식, 한국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한국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한국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분리 우세형과 통합-동화 유형 간에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인데, 아시아 거주 CCKs는 한인 사회와 유사한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에 거주하는 분리 우세형 CCKs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 현재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은 체류국의 문화에 대한 수용정도가 낮기 때문에 CCKs가 지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CCKs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상호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교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분리 우세형 학생의 경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CCKs의 장점을 최대화시키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친구지지로 나타났는데, 친구지지가 부족할 때 분리-주변화 유형이나 주변화-동화 유형을 보일 확률이 높았다. 이는 한국 내의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윤수정, 2009; 채송희, 2009). 청소년 시기는 또래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며, 대인관계가 자존감이나 학교적응 등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인관계가 잘 되지 않을 때 타문화권에서의 참여 역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CCKs 중에 선교사 자녀처럼 여러 국가를 이주하게 되는 아이들은 대인관계의 단절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학교나 공동체에 깊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Pollock & Van Reken, 1999). 분리-주변화 유형과 주변화-동화 유형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른 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문화적응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해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CCKs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상담보다는 온라인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의 유대모임 마련 및 온라인 또래상담 혹은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귀국 대학생 등을 멘토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한인 국제학교의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상담실에서 체류지에서의 문화적응 훈련을 제공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적지지 이외에 문화적응 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언어능력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어 구사정도가 높을수록 분리 우세형의 유형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학생 혹은 한국의 중도입국 학생들에 대한 언어와 문화적응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강재원, 2012; 문영하, 2012)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한편 거주지 언어 구사능력은 특이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언어구사능력이 좋을 경우 오히려 통합-동화 유형이나 주변화-동화 유형보다 주변화-동화 유형에 해당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주변화-동화 유형은 거주지 언어구사능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가족지지의 부족 등으로 문화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출국시기는 아시아 거주 CCKs의 문화적응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체류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한 학생들이 동화 유형을 보이며, 짧게 거주한 학생들이 주변화나 분리 유형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강재원, 2012) 및 6세 이전에 출국한 경우 문화 동화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경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체류국에서도 계속 한국의 소식을 접하며 한국의 문화적 요소들과 접촉해왔을 수 있다. 혹은 방학 등을 이용해 체류하는 기간 내에도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 출국시기가 이들의 문화적응 유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출국시기와 문화적응 유형 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다른 요인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집단은 주변화-동화 유형과 분리-주변화 유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은 주변화의 정도가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CCKs의 경우 주변화 성향은 문화적응의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주변화 성향이 높은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이들의 문화적응을 선제적으로 돕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화 성향이 높은 한인 CCKs의 경우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낮을 뿐 아니라 체류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적은 특징을 보인다. 앞선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면 이들에게 체류국의 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적응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또래를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지 학생과 멘토링을 실시하는 방법은 체류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힐 뿐 아니라 또래의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erry와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도 동화나 주변화 유형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유형이 함께 높게 나타나는 학생들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편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주변화-동화 유형의 학생들의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모습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존재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심리적 특성 변인을 보완하여 CCKs의 문화적응 유형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CCKs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는 북미 문화권의 학생들에 비해서도 적은 편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북미 문화권의 학생들에 비해 아시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미경, 이순형, 2010; 이수경, 2014), 이에 관한 추후 연구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교사 자녀나 주재원 자녀 등 부모의 직업으로 인한 차이 및 동남아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 간의 세부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과 홍콩에 거주하는 학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례에 기초하여 축적된 CCKs의 자료들을 토대로 부모의 직업 혹은 국가 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화적응의 차이를 탐색할 수 있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60% 이상은 한인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는 해당 지역의 공립·사립 혹은 국제학교에 다니는 미국이나 유럽의 CCKs와는 다른 특징을 보일 것이므로, 본 연

구의 결과는 아시아 지역 CCKs 범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2011)에서 영어권 국가에서 현지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해당 지역 문화에의 정체성이 발달하며 그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으나, 한국인 국제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이수경(2014)의 연구에서도 북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동화나 통합 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으나,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분리 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다. 북미나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CCKs가 다른 문화적응 유형을 보이는 원인에 관한 추후 연구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CCKs 개념의 활용 범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다문화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Gladding, 2014), 다문화와 CCKs 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논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두 가지 이상의 문화를 접한다는 점에서 CCKs에 포함될 수 있으며, 아울러 유학생, 탈북자, 귀국학생, TCKs 등의 학생들도 동일한 이유에서 CCKs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CCKs 개념이 해외의 두 문화 이상을 접하는 위와 같은 아이들의 연구에 적용된다면, 향후 한인 CCKs, 재한 유학생, 탈북 학생 등의 여러 다양한 학생들의 문화적응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 질 수 있으리라 사료한다.

참고문헌

- 강재원(2012). 다문화 호주 사회의 문화적응과 민족의 고유한 스포츠 문화참가: 한인 1.5~2세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외한인연구**, 27, 7-59.
- 권미경, 이순형(2010). 조기 해외 유학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 문화적응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발달연구**, 17(1), 145-171.
- 김동화(1996). MK 부모를 깨운다. **MK 저널**, 제 2호.
- 김동화(1999). “선교사 자녀들의 특성 및 한국선교사 자녀교육의 방향”, 박순남, **한국선교사 자녀핸드북**. 서울: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58.
- 김석원(2008). 「제 3문화 아이들(TCK)」의 정체성 분석과 교육적 대안 탐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선미(2009). ‘기러기 엄마로 살기’: 일상생활의 구성 그리고 관계맺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41-59.
- 김유선(2003). 한국 선교사 자녀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목회상담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 김향미(2013). TCK의 특성 이론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해외 귀국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문화 간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동대학교 상담대학원.
- 김희정, 최연실(2012). 자녀의 해외유학 ‘기러기 가족’의 가족구조 분석에 대한 질적사례 연구. **상담학연구**, 13(6), 2965-2986.
- 남순현(2010). 중국유학생의 학년별 학교생활적응유형분석 및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정체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教育心理研究**, 24(4), 977-998.
- 남효진(2007).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정체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두훈, 박재황(2013). 중국인 유학생의 Glasser 내·외부 통제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4(4), 2067-2083.
- 리난(2009).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 문영하(2012). 몽골 청소년의 몽골어·한국어 숙달도와 문화적응 유형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 박정호(2003). 한국선교사 자녀 교육현실에 대한 방안. 석사학위 논문,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 박희정(2004). 한국선교사자녀를 위한 단기선교교육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반승현(2008). 사회적 지지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2010). 해외 거주 후 국내 대학에 진학한 귀국 대학생의 문화적응 양상과 심리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2), 125-146.
- 윤수정(2009). 한국주재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문화 수용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이수경(2014). 해외 거주 CCKs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수연(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조기유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6(2), 45-62.
- 이승연, 오인수, 이주연(2014).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 피해, 가해-피해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 **청소년학 연구**, 21(5), 391-416.
- 이승중(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 이정우(2007).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예비교사의 고정관념: 사회과 예비교사 교육에의 함의. **시민교육연구**, 39(1), 153-178.
- 임은미, 정성진, 이수진(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상담학 연구**, 11(3), 957-973.
- 전이나(2008). 기러기 아빠의 여가계약과 극복과정.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진경, 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조은숙(2011). 부모 비동반 조기 유학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문제점 및 지원 방안: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2(1), 87-114.
- 최양숙(2005). 비동거 가족경험: '기러기 아빠'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채송희(2009).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조기유학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연구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연구보고 09-R-15-1.
- 홍미기(2009).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Berry, J. W. (1970). Marginality, stress and ethnic identification in an acculturated Aboriginal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 239-252.
- Berry, J. W. (1974). Psychological aspects of cultural pluralism: unity and identity reconsidered. *Topics in Cultural Learning, 2*, 17-22.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findings* (pp. 9-25). Boulder: Westview.
-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p. 201-234).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Chun, P. Balls-Organista, & G.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17-37). Washington, DC: APA Press.
- Berry, J. W., &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Dasen, J. W. Berry, & N. Sartorius (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 applications* (pp. 207-236).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eds.). (2006). *Immigrant youth in cultural transition: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cross national context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erry, J. W., & Sam, D.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 (2nd ed., pp. 291-326). Boston: Allyn & Bacon.
- Bhugra, D. (2003). *Migration and Depress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8*(Suppl. 418), 67-72.
- Dubow, E. F., & U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Finch, B. K., Kolody, B., & Vega, W. A. (2000).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mong Mexican-Origin adults in Californi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 295-314.
- Glading, S. T. (2014). 상담심리학{Counseling: A Comprehensive Profession, 6th ed}. (노성덕, 김호정, 이윤희, 윤은희, 채중민, 김병관 공역). 서울: 학지사.
- Hair, J., & Black, W.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vey, J. D., & King, C. A. (1997). Suicidality among acculturating Mexican-Americans: Current knowledge and directions for research.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7, 92-103.
- Hovey, J. D., & Magana, C. G. (2002).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3), 223-237.
- Kosic, A. (2004). Acculturation strategies, coping process and acculturative stres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5, 269-278.
- LaFromboise, T., Coleman, H. L., & Gerton, J.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 395-412.
- Marcia, J. (1994). The empirical study of ego identity. In H. Bosma, T. Graafsma, H. Grotevant, & D. de Levita (Eds.), *Identity and development: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pp. 67-80). Thousand Oaks, CA: Sage.
- McCaig, N. M. (1994). "Growing up with a World View: Nomad Children Develop Multicultural Skills." *Foreign Service Journal*, September, 32-41.
- Melton, R. (2005). *The New American Expat: Thriving and Surviving Overseas in the Post-9/11 World*. London: Nicholas Brealey.
- Pollock, D. C., & Van Reken, R. E. (1999). *The Third Culture Kid-Experience: Growing up among the worlds*. Intercultural Press.
- Pollock, D. C., Van Reken., & Ruth E. (2009). *Third Culture Kids: Growing up Among Worlds*. Boston, MA: Nicholas Brealey Publishing/ Van Reken, Ruth E.;Bethel, Paulette M. 2005. "Third Culture Kids: Prototypes for understanding Other Cross-Cultural Kids," *Intercultural Management Quarterly*, 6(3). 3.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Sam, D. L., & Berry, J. W. (2006). *Acculturation Psychology*. UK: Cambridge.
- Sandhu, S. D., & Asrabadi, R. B.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 75(1), 435-448.
-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54). Acculturation: An exploratory formul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56, 973-1002.
- Useem, R. H., & Cottrell, A. B. (1996). Adult third culture kids. In C. Smith (Ed.) *Strangers at home: Essays on the effects of living overseas and coming home to a strange land*(pp. 22-35). Bayside, NY: Alethea.
- Useem, R. H., & Downie, R. D. (1976). Third-Culture kids. *Today's Education*, 65, 103-105.
- Van Reken, R. E., & Bethel, P. (2005). Third culture kids: Prototypes for understanding other cross cultural kids. *Intercultural Management Quarterly*, 6(4), 3-9.

* 논문접수 2014년 11월 4일 / 1차 심사 2014년 12월 12일 / 2차 심사 2015년 2월 2일 / 게재승인 2015년 3월 6일

* 이수경: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 및 심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함. 현재 한세대학교대학원 상담학과 연구전담 조교수로 재직 중임.

* E-mail: faithlsk@empas.com

* 오인수: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West Chester University에서 학교상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취득한 후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상담자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함.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교육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임.

* E-mail: insoo@ewha.ac.kr

Abstract

Acculturation Type and Acculturation Stress of Korean Cross-Culture Kids(CCKs) in Asian Countries

Lee, Soo-Kyoung*

Oh, In-Soo**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identify acculturation type of Korean CCKs residing in Asia and factors influencing on their acculturation type by investigating 22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siding in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Hong Kong,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The cluster analysis revealed that the acculturation type of Korean CCKs in Asia was categorized as four groups: separation-marginalization type, separation dominant type, integration-assimilation type, and marginalization-assimilation type.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showed that gender, fluency in language, peer support and family support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on the acculturation type. The difference of acculturation stress in terms of acculturation type is also identified. Those who belong to the separation-marginalization type and the marginalization-assimilation type were found as experiencing higher acculturation stress than those who belong to the integration-assimilation type and the separation dominant type. Implications for effective counseling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suggested.

Key words: Cross-Culture Kids(CCKs), Acculturation Type, Acculturation Stress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부
속

<부록>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문화적응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관관계 및 기초분석 (N=2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M	SD
1. 출국시기*	1	.131*	-.187**	.075	.126	.095	.040	.054	.278**	.133*	.253**	.121	1.98	.826
2. 한국어 능력	1	.164*	.169*	.194*	.224**	-.112	-.073	-.039	-.016	-.036	-.145*		3.35	.762
3. 거주지 언어능력	1	.174**	.185**	.266**	.083	.069	.054	.032	.048	-.019			2.36	.945
4. 친구지지	1	.379**	.404**	-.333**	-.317**	-.109	-.276**	-.170*					23.88	4.603
5. 가족지지	1	.452**	-.124	-.181**	-.017	-.046	-.085	-.138*					23.62	5.527
6. 교사지지	1	-.140*	.030	-.077	-.034	-.177**							21.86	4.302
7. 지각된 적대감	1	.800**	.369**	.638**	.549**	.710**							7.71	3.174
8. 지각된 차별감	1	.493**	.709**	.684**	.825**	14.94							5.889	
9. 향수병	1	.486**	.698**	.577**	8.93								3.997	
10. 두려움	1	.636**	.731**	7.19									3.091	
11. 문화적 충격	1	.668**	5.84										2.444	
12. 기타 스트레스	1	18.76											6.859	

*p<.05, **p<.01

* 출국시기는 1세 이상-6세미만(영·유아기)을 1로 코딩, 6세 이상-12세 미만(아동기)은 2로 코딩, 12세 이상(청소년기)은 3으로 코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음.

